

관광지 시내에서 누드 화보 찍은 여성



인도네시아 발리 시내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며 사진을 찍는 백인 여성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데일리메일 호주판에 따르면 백인계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발리 캉구 쇼핑센터 앞의 도로를 건넜다. 쇼핑센터 쪽에는 일행인 다른 한 여성이 도로를 건너는 이 여성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은 도로를 건너며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을 흔들고 웃기도 했다. 이 여성은 또 도로를 건너 약국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고, 다른 여성은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촬영을 끝낸 두 여성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사진을 확인했다.

이 두 여성의 모습이 발리 캉구 뉴스 인스타그램에 “나쁜 행동, 금지” 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발리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농담거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 이라고 분노했다.

구스티 슈리안네가라 발리 바동 경찰서장은 “그들의 행동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 이라며 “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두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 이라고 발표했다.

관광객들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계속되는 관광객들의 일탈 행위로 지난해 8월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발리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관광객들에게 너무 질렸다.” 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관광객들은 추방 하겠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기 폭발’ 유니콘 강아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TikTok)에서 스타가 탄생했다.

15일 CNN은 ‘유니콘 강아지’ 로 불리는 생후 12주의 반려견 ‘래’ (Rae)의 사연을 소개했다.

골든리트리버 종의 이 반려견은 독특한 외모로 인기를 얻고 있다. 래는 머리 양옆에 두 개의 귀가 있는 보통 개들과 달리 머리 위에 단 하나의 귀만 가지고 있다. ‘유니콘 강아지’ 로도 불리는 래는 처음부터 머리 위에 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래를 처음 치료한 미시간주의 한 동물병원에 따르면, 래는 태어난 직후 어미가 양막과 태반을 훔아 닦아주는 과정에서 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래는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부가 심하게 벗겨진 한쪽 귀와 피부는 완전히 도려내야 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게다가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였기 때문에, 수술을 견뎌낼지도 의문이었다.



▲ ‘유니콘 강아지’라 불리는 래(위 사진). 아래는 수술 받은 직후, 귀가 원래의 자리에 있었던 당시의 모습

래는 수술을 받은 후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당시 의료진은 남은 한쪽 귀와 피부를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했는데, 몸이 자라면서 피부가 점차 늘어났고, 이에 따라 귀의 위치도 달라지면서 현재의 ‘유니콘 강아지’ 가 됐다.

이후 해당 동물병원 측이 래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틱톡에 올리기를 시작했고, 그러자 래는 순식간에 SNS 스타가 됐다. 처음 36명 정도에 불과했던 팔로워는 단 며칠 새 5만 6,000여 명까지 증가했다. 동영상 조회 수도 400만 회에 육박할 정도이다.

이 동물병원의 관계자이자 래를 입양한 브리어나 보히스는 CNN과 한 인터뷰에서 “4년 전 같은 골든리트리버 종의 반려견을 떠나보낸 상처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온 골 리트리버 강아지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고 함께 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 ‘래’ 의 귀가 머리 꼭대기로 ‘이동’ 할 것이라고는 우리 모두 예상치 못했다.” 면서 “현재 ‘래’ 의 건강이나 청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고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부고기사만 무려 10페이지

코로나19 확진세가 극심한 이탈리아의 한 지역 일간지에 한 달여 사이에 부고기사만 10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지난달 9일 롬바르디아주에 있는 베르가모의 한 지역 일간지에는 1.5페이지 분량의 부고기사가 실렸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여가 지난 지난 13일, 이 일간지는 종전의 약 10배에 달하는 10페이지를 부고 기사에 할애해야 했다.

10페이지를 가득 채운 부고 기사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이탈리아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 페이지에 20여 명의 부고 기사가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 단 1~2일 사이에 수백 명이 해당 지역 안팎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고 기사에 실린 사망한 환자들의 나이 등 세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이탈리아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코로나19 치사율로 목숨을 앓고 있다.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수는 2만 4,747명, 누적 사망자는 1,809명에 이른다. 특히 누적 사망자 수는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3,199명)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탈리아는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봉쇄령을 내렸지만, 초고령자가 많은데다 의료진과 의료장비의 부족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